Alle gegen Alle: 사이버네틱스, 힘, 그리고 포스트휴먼 모놀리스

Aldo Poblete Varas
2026년 11월 10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 라인강 기슭에서. 투석기, 모자, 포화에 휩싸인 대성당들, 물속을 달리는 사람들. 반쯤 잠든 사이버네틱스. 그 대화 상대들은 명령을 운용하는 자들보다 수련 중인 사제들을 더 닮았다. 몇몇 젊은 철학도들의 교육적 명료성과 예비교육에 대한 본능이 이 사이버네틱스를 줄곧 묻어 왔다. 그들은 요구받은 일을 해야 할 때 했고, 정당화해야 할 것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다. 세상은 가장 강한 것, 스스로를 관철할 수 있는 것에 우선권을 준다. 세대들이 스스로를 만들어 내고 집단적 파괴에 대비해 몸을 갖추는 동안, 그들을 이끈 것은 오직 힘이었다. 결국 승리는 시대가 불어넣은 끝없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길에 몸을 내맡긴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트랙터는 잔혹한 속도로 사회라는 들판을 가로지르며 법이 허용해 온 불규칙성을 산산조각 냈다. 그 불완전한 질서가 지속되려면 지나치게 많이 배운 자들은 팔도 도덕도 한 번 이상 비틀리도록 내맡겨야 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곳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언제나 저편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데올로기로 쓰이는 우연적 유물론이 우리에게 가장 사나운 형태의 순진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에서 숲은 소프트웨어가 되어, 우리의 전후 평온은 전자 시인이 계산해 낸 오류라고 순례자를 설득한다. 도쿄가 우리 건축적 고뇌의 분점으로 나타나는 곳에서, 오늘의 독일은 역사가 아직 있음을 일깨운다. 강기슭의 전투. 아래로, 더 아래로, 지하에서 전대들은 여전히 슬로 모션으로 환원 불가능한 강철을 향해 전진한다. 이 강의 기슭에 선 사제의 갈증, 이제는 순전한 대화, 시각적 미로. 끝나지 않으면서도 질주하는 나날. 학생들은 노인에게 그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한다. 여기서 고통은 변덕에서, 신비가의 텍스트는 결정판 전술 교범에서 분리된다. 안전장치는 풀려 있다. 철학은 세계를 이용해야 한다. 그 역의 작동은 사출되어야 한다. 이 대화가 그저 인간적인 것의 너머로 돌진하는 과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진하려면 얼마나 많은 파괴를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포스트휴먼에 대해 말하려 애써 왔다. 아직 완전히 폐기되지 않은 미학이 우리가 도약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도 거의 기계인 우리는 이미 그 강을 건넜다.

다음 벽돌을 놓으려면 그 앞의 벽돌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하늘 끝까지, 또 우리 모두를 삼키는 탐욕스러운 기계의 중심까지 비밀 통로를 보장하는 자유를 요구한다. 과학과 말 그 자체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되살아난 건강을, 모든 학살에서 의식들의 수직성을 받아들이는 데 바탕을 둔 영구 평화를 끌어내려는 총체를 세운다. 시인의 가장 높은 성취는 언어와의 결실 없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다. 글쓰기야말로 줄곧 문제였다. 우리가 찾아낸 해결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쓰며 아카이브에 먹이를 주는 것이었다. 그사이 우리 등 뒤에서는 거대한 흑백의 모놀리스가 솟아올라 인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우리는 진보가 토막 나는 광경을 증언해야 했다. 우리는 그 붕괴를 돌봐야 했다.

공생체를 위한 약, 부패한 몸들의 해방,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확신이 넘쳐나는 미래에서 온, 안전벨트를 매는 안드로이드적 현실. 신소재의 영역의 삶과 삶 이후, 자동화된 과학들, 격론의 형태를 띤 전쟁, 귀결의 세계의 종말. 향수에 젖은 자들은 존재들이 아직 죽던 때에는 모든 것이 더 단순하고 더 좋았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을 겨냥한 초현실적 수사의 홍수에 잠길 것이다. 통제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혼돈은 극단에 이를 것이다. 모든 것이 넘쳐흐르는 듯할 때조차 혼돈의 경계는 온전할 것이다. 되살아난 자들은 다른 이들일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킬 테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역겨운 시대가.

삶은 자의적인 것에, 한 방향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데 있다. 다행히 이야기들은 자동화되어, 자명한 것을 설명하는 고역에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다. 이야기들은 삶이 어떻게 무한의 혼돈으로부터 목줄을 빼앗았는지 말해 줄 것이다. 이제 삶은 제 손으로 그 목줄을 쥐고 자신의 불확실한 운명을 이끈다. 지성은 실재의 경계를 지도에 그릴 것이다. 오직 그 경계를 바꾸고 제 뜻대로 살기 위해. 미래에서 태고 속으로 파고드는 기술. 우주에 자유를. 자신의 자유에 깃든 위험을 감지하는 의식.